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9월 24일(화) 오전 10시30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인력과 이호현 과장(2110-5168), 김상우 사무관(2110-5167)
조선해양플랜트과 최규종 과장(2110-4691), 이영희 주무관(2110-4694)
전자부품과 김정일 과장(2110-5390), 홍수경 사무관(2110-5247)
철강화학과 문동민 과장(2110-5641), 권현철 사무관(2110-5648)
섬유세라믹과 김일호 과장(2110-5651), 문철환 사무관 (2110-5653)

산업부,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선다

- 일자리 친화형으로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-

- 2017년까지 해양플랜트 등 4대 산업 3.7만개 일자리 창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(장관: 윤상직, 이하 산업부)는 9.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『**전략산업 인력양성 및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방안**』을 보고하였음

○ 본 대책은 『고용률 70% 로드맵 ('13.6월)』 이행을 위한 산업부 차원의 정책방안이며, 이외에도 연말까지 우리 산업의 **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**을 지속 발굴할 계획

□ 우리 경제의 제조업 일자리는 **빠른 속도로 감소**하고 있고, **일자리 창출여력도 급속히 저하**되고 있는 상황

○ 한편, 인력 부족으로 **일부 산업의 생태계가 와해**될 우려가 있으며, **미래 유망산업**은 **산업 성장의 기회**를 놓칠 가능성

□ 이에 따라, 산업부는 『**전략산업 인력양성·공급 → 인력 수요기반 조성 → 창조경제형 新 시장 창출 → 일자리 수요 확대**』로 이어지는 **선순환 구축**을 위한 **산업인력 정책**을 추진해 나갈 계획

○ 즉, ① 정부 주도로 모든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점을 감안, **전략산업에 타겟팅하여 인력 공급을 지원**하고, ② 단기 성과창출형 R&D 등을 통해 양성·공급된 인력이 **일할 수 있는 산업여건을 조성**하는 한편, ③ 대형 메가 프로젝트 등을 통해 **창조경제형 新 시장**을 창출

□ 우선, 이번 대책에서는 **해양플랜트, 임베디드 SW, 뿌리, 섬유·패션산업**을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**발화점(發火點)**이 되는 **4개 전략산업**으로 선정하여 지원방안을 마련

○ 전략산업 선정시에는 **인력양성의 시급성, 他 산업 파급효과** (Spill-over), **인력부족전망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

< 산업별 인력부족 전망 (5년간) >

구분	해양플랜트	임베디드SW	뿌리산업	섬유·패션
인력부족규모	**5천명**	**11천명**	**2.5만명**	**4천명**
고급인력	설계 엔지니어링	HW/SW 융합	연구요원	하이브리드 디자인
중급인력	연구개발	연구개발	숙련 기술자	시장개척인력
기능인력	용접, 배관	-	주조, 용접	봉제인력
他 산업 파급효과	**기계, 화공, SOC, 환경, 에너지**	**무인자동차, 항공기 등 미래성장동력**	**전 산업의 공통기반인력, 산업혁신 3.0**	**아웃도어 의류, 섬유+신발 융합, 글로벌 명품**

≪ **4대 전략산업 인력양성 · 공급** ≫

□ **(해양플랜트)** 최고급 두뇌인력은 **단기간 양성이 어려운 점**을 감안하여 글로벌 산학협력 등 **전방위적 인력프로그램**을 발굴

○ **영국, 미국, 노르웨이** 등 해외 유수 대학의 '석·박사 과정' 참여를 지원하는 **『해양엔지니어링 장학금』**을 신설하고, **특성화대학**과 **취업연계형 석·박사 협동과정**을 확대 운영

○ 아울러, 해외 수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용접·의장(배관·전기·기계) 등 **전문기능인력 양성·공급 추진**

□ **(임베디드 SW)** 주력산업 관련 커리큘럼에 임베디드 SW과정 필수 설계를 유도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**『대학 SW교육 과정 개선방안』**을 마련 (금년 하반기)

○ 임베디드 SW **전문인력 자격제도 신설**을 추진하고,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**'SW 일자리 인식개선 캠페인'**을 지속 추진

□ **(뿌리산업)** 국내 대학(원)의 **뿌리 커리큘럼을 복원**하여, **전문 이론과 현장기술** 겸비한 **고급인력**을 양성하고,

○ **이공계 전문학사 이상**의 **외국 유학생**을 뿌리산업의 숙련 기술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**'맞춤형 교육프로그램' 시행을 검토**

○ 한편, **'일하기 좋은 뿌리기업'**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, 홍보 지원 등 **세부추진방안**을 **금년 하반기 내 확정**

□ **(섬유·패션)** 하이브리드 및 슈퍼섬유소재 분야와 함께 아웃도어 등 레저산업을 선도할 **'고급전문인력'** 양성을 확대하고,

○ 패션의류의 전 제조과정을 통섭할 수 있는 **'패션전문인력'**과 중소 업체 수출을 지원할 **'시장개척 전문인력'** 양성 지원 추진

○ 아울러, **새터민**을 봉제분야 현장 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**봉제설비 확충, 교육·취업 프로그램** 운영방안을 검토

≪ 4대 전략산업 인력수요기반 강화 ≫

□ 4대 분야에서 양성·공급된 인력이 일할 수 있는 **수요 기반을 확대**

○ **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**하고, LNG선 등 발주와 연계한 국내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의 **수행실적 확보** (Track Record) 지원

○ 스마트미터기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관리시장과 연계한 **임베디드 SW 신규수요를 창출**하고, 오폐수처리 시설 구축·생산성 개선 지원 등을 통해 **뿌리산업의 성장**을 도모

≪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≫

□ 본 대책의 인력미스매치 완화, 신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**'17년까지 총 3.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** (순증)할 전망

○ 4대 전략산업 인력양성을 통해 약 5천명을 취업으로 연계하고, 해양플랜트 추가수주, 임베디드 SW 시장 조성 등으로 약 6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**총 6.5만명의 추가 고용여력** 확보

○ 다만, 산업의 고부가가치화, 4대 산업 이외 他 분야 정부지원 감소 등에 따라 **약 2.8만개의 기존 일자리 감소**가 예상

≪ 후속대책 발표계획 ≫

□ 산업부는 **하반기**에도 우리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**후속대책**을 **세부 업종, 계층별로 지속 발굴**

○ **업종별**로는 '레저·소비재 대중명품화 (Masstige)' 및 '임베디드 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' 전략과,

○ **계층별**로는 '이공계 여성의 R&D 전문인력화 추진방안', '기업현장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' 등을 수립

□ 모든 후속 대책에는 **인력문제해결 및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**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,

○ **산업부가 고용률 70% 달성을 적극 뒷받침**해 나갈 계획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김상우 사무관(☎ 02-2110-516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